완주産 초코파이 출시

완주지역자활센터 '초코파이 사업단' 개소
일자리 창출 · 소득 향상 통한 활력소 기대

완주산 초코파이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한다.

완주군은 지난 3일 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진왕)가 자활사업 관계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초코파이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완주초코파이 사업단은 132㎡ 규모로 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를 시작으로 카페를 겸한 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석대 먹자거리 상권 내 삼례읍 동학로 103에 위치해 있어 젊은 고객층 확보도 용이할 뿐 아니라, 몇 차례 걸친 시식회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초코파이들보다 단맛이 줄어 누구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업에 종사하는 자활참여자 15명중 제과제빵기능사 및 바리스타 등 기술 보유인력이 4명으로 사업추진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으며, 전주한옥마을 초코파이 유통업체인 (유)두드림푸드시스템과 납품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납품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 했다.

또한 내년 초부터는 1일 4,000개의 초코파이를 납품할 예정으로 월 순수익금 2,300여만원이 발생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추후 완주초코파이 사업단은 우리밀, 삼례 딸기, 동상 곶감과 홍시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초코파이를 개발하여 완주군 대표 먹거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모여 뜻 깊은 결과물을 창출한 것 같다. 이를 발판삼아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 노인대학 졸업식… 92명 졸업생 배출

2016학년도 제15기 무주군노인대학(학장 박만술) 졸업식이 지난 3일 무주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졸업식에는 하성용 부군수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이광부 회장을 비롯한 졸업생 등 1백 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노인강령 낭독과 학사보고, 졸업장과 표창장 수여식 등에 함께 했다.

무주군 노인대학 학생장 김종구 씨(80, 안성면)와 무주읍 대표 지영애 씨(77), 안성면 대표 정정애 씨(81), 적상면 대표 김창치 씨(82), 부남면 대표 주영기 씨(78)가 노인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인대학장상을 받았다.

하성용 부군수는 "노력의 댓가로 학사모를 쓰시고 열정의 결실로 제15기 무주군 노인대학 졸업생이 되신 여러분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우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마음껏 배우고 즐거우실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일하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군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군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지난 '81년도에 설립, 운영해오고 있는 곳으로, 2016학년도 제15기 노인대학과정은 4월에 개강해 "100세를 청춘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비롯한 "아름다운 노년의 삶" 등의 특강과 생활체조, 노래교실 등의 교양강좌로 진행됐으며, 92명의 학생들이 이날 졸업의 결실을 맺었다.

졸업생 김 모 씨는 "또래들과 함께 배우며 지낸 지난 몇 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훌쩍 흘러가버렸다"며 "이 나이에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니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지고 젊어진 기분"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협약체결

세계 희귀 가위 1500여점 소장 · 전시
수천리 고분군 출토 고려시대 가위 첫 선

진안군은 3일 국내 유일 가위박물관인 진안가위박물관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관준비에 나섰다.

군은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기관 공모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세계가위문화연구소(대표 이대암)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가위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며, 11월 중에 개관 예정이다.

가위박물관은 지난해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2016년 10월 조성돼 가위라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계 희귀 박물관으로, 한국과 동양·서양을 망라한 다양한 형태의 세계 희귀 가위 1,500여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세계가위박물관 전시실은 크게 1층과 2층으로 구분며 1층 전시실은 크게 가위의 역사, 가위와 인물, 세계의 가위 등 세 공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가위의 역사 코너에서는 서양과 동양 가위의 역사와 함께 진안의 가위를 감상할 수 있는데 진안의 가위에서는 용담댐 수몰지역인 수천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가위가 전시되면서 출토지인 진안에 첫 선을 보인다. 가위와 인물 코너에서는 가위 손잡이 형태가 왕관 모양인 한나 부인의 가위를 비롯하여 러시아 로마노프 황실의 여대공 올가가 소유했던 가위 등이 전시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가위 코너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가위가 전시되는데, 대표적으로 황새가위와 포도가위 등이 선보인다.

황새가위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유럽 여성들 사용했던 자수와 바느질 도구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

포도가위는 19세기 유럽의 귀족들이 식탁에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행위를 품위가 없다고 여겨 사용한 식생활 도구 중 일부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이슬람 캘리그라피 가위, 정복을 꿈꿨던 우크라이나 바이킹가위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빅토리아 앤틱가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유럽 및 미국에서 유행한 곡선 예술이 뛰어난 아르누보 양식의 가위, 전투지역에서 부상병의 생사를 가르는 야전가위 등도 전시된다.

2층 전시실에서는 생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주방가위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용가위, 미술공예시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예가위, 소중한 가위를 보관하는 가위집 등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위를 전시하며 가위관련 공예체험을 할 수도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출향인 초청 지역발전 세미나

무주군은 3일 무주수련원 대강당에서 출향인 초청 지역발전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출향인들의 자긍심을 키워 고향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무주군발전협의회(회장 권영철)가 주관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무주군 출신 출향인 18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주군청 한상술 기획조정실장이 "무주군 미래발전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해 관심을 모았다.

한 실장은 "우리 농촌은 농업소득과 인구감소, 고령화와 과소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귀농 · 귀촌 확산과 6차 산업화 등 미래 개척의 기회도 맞고 있다"며 "무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미래발전 전략을 농업과 관광, 공동체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반딧불 농 · 특산물 브랜드와 무주반딧불축제,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 마을로 가는 축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에 관한 체감 정도를 이야기하며, 무주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 농·임·축산물을 명품으로 육성하는 노력과 △잠재 관광자원 및 체류 관광객 확대, 그리고 △태권도를 무주브랜드로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향인 한 모 씨(58세, 서울)는 "고향의 변화된 모습, 또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힘을 얻는다"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곳이 바로 부모형제의 숨결이 아직도 생생한 무주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고향발전을 위해 마음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진안군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면발전협의회가 지난 2일 마령면사무소에서 공동위원장인 이항로 군수와 손재권 전북대 농생명학과 학장을 비롯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불특정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대와 세대, 이웃과 이웃을 아우르고 연결하여 천년의 마령을 이어가다', '불로장생 마령'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된다.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귀농·귀촌 등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애물 없고 소통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 경관개선, 소득기반,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여건을 분석해 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면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손재권 전북대 농생명학과 학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은 인근 마을과 연계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며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장수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상호간 화합 · 친목 도모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장수군 의용소방대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일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2016년 장수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그간 화재현장 및 재난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심폐소생술 경연분야, 단체줄넘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수군 의용소방대 14개대의 대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재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김윤섭 부군수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장수군 의용소방대는 재난과 화재현장에서 지역 파수꾼 역할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 위원회, 소규모 저온저장고 72개 지원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의 완주形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을 통해 출하조절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72개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완주形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은 총 8억원 규모로, 이번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군비 1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출하조절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업인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이상고온에 따른 여름철 농산물 품질저하 및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제 값 받기에 도움줄 전망이다.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인 만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농가소득이 향상되는데 한 몫하는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사과 소비촉진 홍보대전'

6일까지 서울대공원에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에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연속 3일간 우리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장수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대공원에서 수도권소비자대상으로 장수사과 소비촉진 홍보대전이 개최된다.

장수군은 이 번 행사 장소인 서울대공원과 지난해에 '고향 숲 조성'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을 이뤄냈으며, 서울대공원 내에 장수사과나무 35주를 심고, 장수사과를 식재하며 홍보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다.

또한 도심 속의 장수사과나무를 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달아 명품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이끌어 냈고, MOU 체결을 통한 홍보로 이번 행사로까지 이어져 많은 관심을 있을 것 같다.

이 기간 메인 행사로는 방문객 대상으로 장수전시관, 사과시식회 등을 운영하며, 부대행사로는 못난이 사과 길게 깎기, 사과 무게 맞추기, 사과 다트게임, 사과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계획이며,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경품이 벤트등을 통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제일 사과 주산단지인 장수사과의 위상을 높이고 품질 좋은 장수사과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특산품인 장수사과 명품 브랜드화 전략을 강화 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로컬뉴스

진안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진안군은 3일부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량은 공공비축미 2,598톤, 시장격리곡 1,772톤을 합쳐 전년보다 258톤 늘어난 4,370톤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품종은 운광, 새누리 등 2개 품종이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은 1등품 기준 지난해보다 7,000원 낮은 4만5,000원을 매입 시 지급하고, 2017년 1월 중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첫날 현장을 찾은 이항로 군수는 올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를 위로하며 그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항로 군수는 "수매 농가의 편익 증대와 경비절감을 위해 공공비축미 톤백벼 수매를 확대하는 한편 운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매장소 확대 등 더 편리하게 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역량강화교육 실시

완주군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완주문화원 교육생(완주문화해설 과정)을 대상으로 해설서비스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3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인적서비스 역량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해설사들이 인식 공유해야 할 완주군의 현황과 관광정책, 지역특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완주군에서는 앞으로 민선6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정책과 해설사들의 현장감을 살린 경험을 토대로 '완주군 문화관광해설 매뉴얼'을 제작·공유하고, 해설사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역사, 문화, 예술, 서비스 등 분야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설사간 역량차이를 줄이고 표준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경찰, 한누리전당서 교통사고예방 홍보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은 지난 2일 오전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장수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한 의용소방대 연합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한누리전당에서는 기관단체장, 무진장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경연대회 참석자를 상대로 행락철 운전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보행자 안전수칙, 교통사고처리요령 등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부하며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행락철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전단지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으로 관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 경찰 합동 교통캠페인

진안군과 진안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진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진안군청 및 진안경찰서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단횡단금지, 안전벨트 착용, 스쿨존 규정 속도지키기 (30km) 및 불법주정차 금지 등 교통질서 준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